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도



세상이 불타고 있다

요즘은 신문이나 TV를 보기가 겁이 난다. 온통 전쟁, 테러, 납치, 살인 등의 기사로 얼룩져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입국하여 성매매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나 공권력이 범인을 취재하는 도중에 구타로 인해 피의자를 죽으로 몰아넣는 등 이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살인, 납치, 임금착취, 성매매 등 그 이유가 여하튼 인간의 생명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두려움과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입장적인 것은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 나약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인가 하는 회의이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현양하기 위해 미물일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때문에 번식하기 우기에 출가자들은 외출 내지 여행하지 말고 조용히 수행에 정진하라고 가르친다. 재가자들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재판관이나, 무기장사, 특약매매하는 일 등 생명과 관계가 있는 직업은 피하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생명 자체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목적이란 점을 각인시키기 위

이상의 설법에 의하면 인간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의 독소로 알려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여기서 탐욕이란 갈망과 갈애(渴愛)를 지칭하는 말이다. 갈애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표현되는 삼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욕애(欲愛), 유애(有愛), 무유애(無有愛)가 있다. 이들 중에서 삼계에 대한 욕망은 세계의 범주에 관한 욕망이며,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인간의 욕망에 대한 구분이다.

여기서 욕애란 남녀간의 애정을 비롯하여 재산, 명예, 식욕, 수면욕 등 오욕을 말한다. 유애란 다음 세상에는 행복과 쾌락이 많다고 생각하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무유애에서 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실제화되지 않는 대상을 갈망하는 욕망이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우비고뇌와 절망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일종의 허무주의 내지 염세적인 탐닉이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욕망의 공통점은 맹목적인 욕망이기에 이성애에 의한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러한 욕망의 밑바닥에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불안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는 이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면 통제하기가 힘든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야기되는 세상사를 불타



“견성은 古語, 법인스



가까이 법인스

수행은 외부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내부에 중심을 둔다. 자신의 각성과 존재 근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자신을 물고 놓아준다. 단순히 생각하면 개인의 해탈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개인의 해탈에 이르기 위한 노력은 그저 그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나아가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의 문제를 넘어 현실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종교는 내면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까?”

“내면과 현실이 둘이라는 이 분법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어찌 나만을



탐욕·이기심의 세상사 불길 비유 부처님, ‘소화’ 방법 8정도 가르쳐

해 노력했던 것이다.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태우고 있는 불 때문이라 설명한다. 인간의 이기심을 기를 삼아 타오르는 불길을 제어하지 않는 한 인간 세상은 추악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잡아활경> 197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1000여명을 넘어서자 상두산(象豆山)에 올라가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설교한다. 불타는 세상에서 논돈 사람들은 그 불길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이 설법의 배경에 깔려 있다.

“비구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이 불타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눈의 분별이 타오르고 있다. 눈이 보아서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모두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과 고통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처럼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통이에서도, 나아가 마음에서도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니라”

고 있다고 비유한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이기심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체의 모든 대상이 이기심을 위해 존재하기만을 바라고, 자기만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지배와 군림의 오만한 마음뿐인 것이 현실이다. 결코 자신을 포함한 어느 것도 누군가의 소유나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자 한다. 그래서 미워하고 저주하며 분노한다.

이때 탐욕과 분노의 불로 타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끌어 앉고 살 수 밖에 없는 인간 자신들이다.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경시하는 테러, 인질극, 전쟁, 인신매매 그리고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편린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종말은 인간세상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파멸의 구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가능한 한 타오르는 불길을 제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친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겨울 초입의 태조산은 차분했다. 어머니 품 같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굳이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고향 냄새. 그 냄새를 다 맡기도 전에 거대한 불상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천안 각원사 하면 청동대불(보통 좌불상이라고 부른다)을 떠올린다. 높이 15m에 무게만 60톤이니 그럴 만도 하다.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청동대불을 봉안하고 호국도량을 건설해 부처님의 진리와 호국사상을 고취시키겠다는 뜻에서 75년 세워진 각원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기자는 천안 각원사로 몇 차례 소풍을 간 적이 있다. 천안에서 자란 덕분이다. 신기한 생각에 몸집만한 청동대불 손가락에 올라갔다가 손저검을 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청동대불과 그 대불을 보기 위해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수많은 계단을 빼고는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각원사가 지금은 돌라보게 달라졌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대규모 사찰로 자리 잡았다. 웅장한 원력으로 불기승한 일이었다.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만난 각원사 주지 법인스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대하듯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반반지. 어떤 때는 몸이 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아예 막 일본에서 돌아와 온들은 신도분들 만나고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만나서 얼굴들이라서 그런지 반갑고 기쁘네요.”

편안해 보였다. 피곤한 탓인지 얼굴은 다소 수척한 듯했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서려져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도반처럼, 형제처럼 재배길 좋아하는 성품이 스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님께서는 선과 교 그리고 교육과 포교 모든 분야에 서명하고 성과를 일깨워 주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이 말씀하셨다.

“견성으로는 안됩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너무나 물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연을 말할 수 없습니다. 승성을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이 액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쳐다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 세

상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안다고 해서 세상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견성은 이제 고어(古語)로 물어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지성(知性)입니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겠는지 여쭙어 보려고 했는데, 법인스님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도대체 견성을 고어로 물어버리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견성을 위해 고행정진을 마다하지 않는 수많은 수행자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법인스님은 단호했다. 단정한 옷매무새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견성을 물어버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니었다.

“서로 대화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견성을 묻자는 것은 나 하나의 깨달

실천없는 깨우침은 공허한 것 승가는 중생의 카운슬러 돼야

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남도 세상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진정한 법다운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세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불교가 살 길은 불교인들이 지성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살 길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知性)이란 무엇인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스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대는 흐름이 있지요. 그 흐름을 놓치면 도태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성이란 그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안다는 것이 지성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 어찌 남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성찰은 곧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사회에 반영되면 그것이 곧 자기의 힘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실천 없는 깨달음은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도를 이루신 뒤 45년간 각지를 다니시며 설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내면과 현실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면과 현실은 혼돈 없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차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승가가 나가야 할 길도 부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로 이것이지요.”

법인스님이 말하는 승가의 역할은 지금까지 어느 스님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것이다. 스님은 승가야말로 중생의 충실한 카운슬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카운슬러 역할처럼 승

萬里四柱 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악역

日刊 社會日報 主筆,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 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정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사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의주로 사주의 운세를 종합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 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복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취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점법
- 주택문제, 진척과 고사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 1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유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악연구원

건강까지 손발온유기

수족 온욕이란 수족온욕은 더운물을 용기에 담고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솥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인진(약쑈)명반을 풀어 손과 발을 담그고 넓은 천으로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덮어 두리고 발한을 시켜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감기 몸살을 예방 치료하였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에 증진하였습니다.

다야 200 980,000 - 660,000
신착순 100명에게 개부가능 광전수 20리터 무료로 드립니다

손발온유기 꼭 필요하신 분들

- 당뇨의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수술 후 부종회복과 전이 방지를 원하시는 분
-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피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냉, 대하로 고생하시는 분
- 산후조리 중이신 분
- 심한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

■ 실용신안등록증 제 0281998호
■ 의장등록증 제 0250258호 제 0250259호

제조원 : (주)김호산업 LIM HO INDUSTRIAL
판매인 : GE - 코리아
주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호 502호
전화 : (대) 02)475-6669 팩스 : 02)475-4356
http://www.onyok.com

승복, 법복안내

인연으로 승복을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재능 생산 연구에 임하는 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재물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을 선택한 디자인으로서 지향한 기복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인원들 -

1 직삼 조끼 비치 W160,000	2 동행 비치 W160,000	3 두루막 W140,000	4 W60,000
5 직삼 조끼 비치 모직누비 W320,000 순면누비 W250,000	6 동행 비치 모직누비 W320,000 순면누비 W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W250,000 순면누비 W160,000	

전누비 세트 8 셔츠 W50,000 (4리터형 리본프롬) 비치 W60,000

해동승복 대구 교역비닐 온인 업무용유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법인, 가사, 비망 및 기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 '법인, 가사, 비망 및 기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장제'의 율을 받는 신비의 기적 '용인佛字체'

반야심경 8품 방종 후반 담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정면주사로 만든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우명상 수상하신 운장선사님 신종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총자)

수족온욕을 가장 고급한 전통 명품 신가 영기 말하는 법자 담가 (달마대사)그림 제작그림 (수액과 차안)특별보시!

사명선체, 가경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액과 방자 총인형형인형 100% 효자 목시품 및 유시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 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 오밤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할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